

베이비붐 세대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가 생성감에 미치는 영향*

김미령**

[요약]

에릭슨의 사회심리이론에 의하면 생성감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통하여 얻어진다.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통하여 사회심리적 강점이 반영되므로 자원봉사를 통해 생성감도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베이비붐 세대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가 생성감에 미치는 영향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베이비붐 세대의 2/5가 사는 서울과 경기도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베이비붐 세대 280명이다. 분석방법으로는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이 사용되었다. 통제변인으로는 연령, 성별, 교육, 종교, 직업, 건강이 사용되었다. 독립변인으로는 자원봉사대상 특성 및 자원봉사시간, 자원봉사시간, 자원봉사만족감, 자원봉사성취감 등 자원봉사관련 변인이 사용되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연령, 종교, 건강은 생성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자원봉사대상이 복지대상자인 경우 일반대상자보다 생성감에 더 큰 영향을 미쳤으며 자원봉사시간, 자원봉사만족감, 자원봉사성취감은 생성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 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는 에릭슨의 사회심리이론의 생성감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베이비붐 세대, 자원봉사, 생성감, 자원봉사만족감, 자원봉사성취감

* 이 논문은 2016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대구대학교 지역사회개발·복지학과 교수; 고령사회연구소 소장

I. 서론

인간수명 100세 시대에 살고있는 현대인 특히 1955년부터 1963년까지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교육수준은 지금까지의 노년기에 접어든 집단 중 가장 높은 세대로 초기 베이비붐 세대인 1955년생들은 2010년을 기점으로 공직에서 은퇴를 시작하였다. 2016년부터 시행된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으로 정년이 60세로 되었지만 베이비붐 세대 중 이에 해당되는 자들은 1958년 이후에 출생한 자들로 현재 직장에서 퇴직하지 않은 자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14.6%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는 국가적으로도 필요한 중요한 인적 자본이라 할 수 있다. OECD 국가 중 가장 이른 은퇴연령을 갖고 있는 한국의 경우 평균수명의 증가로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사회적 역할이 필요하다.

개인은 사회적 역할을 통해 자신의 사회적 역할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 자원봉사는 개인의 정체성에도 중요하며(Cutler, Hendrick and O'Neill, 2011) 사회활동의 한 형태로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 후 사회정체성을 준비하기 위한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자원봉사는 노년기 은퇴 후나 빈둥지 시기에 자신의 정체성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고령화의 주역이 될 베이비붐 세대의 자원봉사는 연속성의 특성으로 인하여 이들이 노년기에도 계속해서 자원봉사를 할 가능성이 크므로 베이비붐 세대의 자원봉사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1990년대부터 노인들이 그 전 세대보다 더 많이 자원봉사를 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기대수명의 연장 등 고령화의 영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2008년 자료에 의하면 44%의 어른이 자원봉사를 하였다고 한다(Ginkelstein, 2008).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의 자원봉사 비율은 15.6%로 한국 전체 자원봉사율인 17.6%에 비하면 낮다(행정안전부, 자원봉사협의회, 2012). 그러나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은퇴연령을 갖고있는 한국의 경우 곧 노년기를 맞이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역할로 자원봉사는 바람직한 대안이 될 것이다. 여성들의 경우는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여 자신들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뿐더러 남성의 경우도 직장생활의 안정 및 사회에 관심을 갖게 되므로(Tang, 2006) 직장을 통한 자원봉사의 기회도 많을 것이다.

자원봉사는 인생의 피크인 중년에 많다고 한다(Wilson, 2000). 특히 55세 이하의 경

우 자원봉사의 목적은 자신의 개발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다고 한다(Tang, 2006). 베이비붐 세대는 현재의 노인들보다 건강하며 교육을 많이 받은 세대로(Rozario, 2016-2017) 높은 교육 수준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많은 가치를 두고 있으며 은퇴 후에도 계속 그러한 일을 하기 원하므로(Freedman, 2006-2007) 자원봉사는 은퇴와 더불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자원봉사를 통해 자원봉사자가 얻는 유익은 신체적 건강, 우울감의 감소, 삶의 만족감, 사회통합감, 생성감 혹은 새로운 기회의 획득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김미령, 2015; Morrow-Howell and Kinnevy, 1999; Morrow-Howell, Hong and Tang, 2009). 그러나 자원봉사와 생성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조윤주, 2015; 한정란, 2015; Morrow-Howell, Kinnevy and Mann, 1999; Son and Wilson, 2011). 자원봉사는 인생의 피크인 중년기에 많다고 한다. 본 연구 대상의 수집 시 베이비붐 세대의 연령은 평균 52.5세로 중년기에 해당된다. 에릭슨의 사회심리이론에 의하면 중년기의 특성이 생성감이라고 한다. 중년기를 보내는 베이비붐 세대는 가장 활발하게 자원봉사를 하는 시기로(강철희 외, 2015) 자원봉사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다양한 활동 중 생성감의 특성(Son and Wills, 2011)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자원봉사를 통한 생성감에의 영향은 의미있는 연구라 사료된다. 또한 다른 세대보다 높은 교육수준으로 인적, 사회적 자본을 충분히 갖고있어 베이비붐 세대의 자원봉사에 관한 관심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강철희 외, 2015) 은퇴 후 길어진 노년기의 역할 대안으로써도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년기의 생성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특히 개인과 사회적 관계의 대표적 활동인 자원봉사를 통한 자원봉사의 생성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자원봉사가 생성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원봉사와 관련된 어떠한 변인들이 생성감을 설명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으로 에릭슨의 사회심리이론에 의한 중장년기에 형성되는 사회심리적 특성인 생성감이 베이비붐 세대의 자원봉사를 설명하는데 적용 가능한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첫째,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자원봉사 관련 변인은 차이가 있는가? 둘째, 베이비붐 세대 자원봉사의 여러 특성은 생성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베이비붐 세대 자원봉사의 여러 특성들이 생성감에 미치는 영향 정도는 어떠한가?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연속이론에 의하면(Atchley, 1995) 노인들은 이전에 했던 수준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유지하려하며 자원봉사를 통하여 활동이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므로써 빈둥지나 은퇴로 인해 상실된 역할을 대체하려고 한다(Morrow-Howell, Kinnevy and Mann, 1999). 이처럼 자원봉사는 사회적인 역할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도 복지에 중요하므로(Morrow-Howell, Hinterlong, Rozario and Tang, 2003) 연속이론의 측면에서 교육 수준이 높고 건강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의 대안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들은 은퇴 후에도 계속 활동하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려하는데 이들이 생산적이고 체계적으로 사회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며 복지감을 높이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적 자원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1. 자원봉사와 생성감

자원봉사란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 유익을 주기위해 무보수로 시간을 내어주는 행동”(Wilson, 2000, S308) 이라 개념정의 한다.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자 입장에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비용이 드는 반면 자원봉사를 통한 이득도 있다. Handy와 Mook(2011)는 자원봉사를 윈윈하는 상황이라고 하고 있으며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자나 자원봉사대상이나 모두 이익을 얻는 활동(Morrow-Howell et al., 2003; Rozario, 2006-2007; Wilson, 2000) 이라고 한다. 자원봉사는 신체건강, 정신건강, 성공적 노화에 중요한 요소로(Cutler et al., 2011; Morrow-Howell et al., 2003) 복지와 건강에 중요하며(Cutler et al., 2011) 자아감이나 성취에 좋은 영향을 주는 등(Cutler, Hendrick and O'Neill, 2011) 개인의 삶의 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Morrow-Howell et al., 2003).

자원봉사자의 유익은 자원봉사자들이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통하여 사회적 자본의 발달에 기여하는 것이다. 즉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사회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Li and Ferraro, 2005). 그 외에도 자원봉사의 유익은 여러 가지가 있다. 자원봉사의 유익은 높은 적응능력, 건강, 높은 삶의 만족도, 낮은 우울감(Pushkar, Reis and Morros, 2002) 등 다양하다. 이처럼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자 자신이 유용하다는 느낌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자원봉사를 통해 정서적 보답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다(Morrow-Howell et al., 2003).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목적은 두 가지로 본다. 첫째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고 둘째는 자신들의 사회적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Morrow-Howell, 1989).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이타적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며 자원봉사의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 하는 것이다(Pushkar, Reis and Morros, 2002). 자신들의 사회적 필요를 채우는 것은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자기강화나 자신감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것과도 관계가 있으므로(Houle, Sagarin and Kaplan, 2005; Li and Ferraro, 2005) 자원봉사는 사회적 기능을 하며 자원봉사를 통하여 생성감을 느낀다(Son and Willson, 2011)고 한다. 즉 Morrow-Howell(1989)이 설명한 자원봉사의 두 가지 목적이 다 달성되는 것이 생성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에릭슨의 사회심리이론에 의하면 성인기에는 본능적으로 에너지가 생성감으로 향한다고 한다(1963). 생성감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으로부터 나오는데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심리적 강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자원봉사는 생성감으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중장년기에는 다음 세대의 복지에 관심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을 돌보게 된다. 에릭슨(1963)에 의하면 중년기에는 생성감에 몰두해 있으므로 여러 방면으로 생성감을 갖기 원한다(MacAdams, Hart and Maruna, 1998)고 한다. 자원봉사를 통하여 자신에 대해 인식 할 수 있을 것이며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결속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생성감은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라 느끼는 마음”이라고 정의한다(Son and Wilson, 2011, p.644).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즉 자원봉사를 통하여 자신의 개인적, 사회적 가치와 능력을 느끼는 것이 생성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Keyes and Ryff, 1998). 이처럼 생성감은 자신의 잠재능력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누어 줄 때 느끼는 것으로 “자기인식에 대한 심리적 도전이며 결속력에 대한 사회적 도전”이라고 한다(McAdams et al., 1998, p.209). 생성감은 심리사회적 과정으로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활동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보며 안내하는 것까지 모두 포함한다고 한다(Erikson, 1963). 즉 자기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되는 것으로(Slater, 2003) 자신과 사회가 연결되었다고 느끼는 감정이 생성감이라고 할 수 있다(Keyes and Ryff, 1998).

생성감은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는 유형”(Son and Wilson, 2011, p.648)으로 선행 연구에 의하면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를 통하여 생성감을 느끼며(Cutler et al.,

2011) 자원봉사를 통해 생성감이 증가하였다(Morrow-Howell, Kinnevy and Mann, 1999). 자원봉사의 효과는 개인이 사회에 무엇인가를 기여하면서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자원봉사와 같이 주변에 책임있는 행동을 할 경우 생성감은 높게 나타난다(Urien and Kilbourne, 2010).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자원봉사를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관계를 형성하기 원하는 것은 생성감을 형성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 생성감은 다양하게 측정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추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생성감은 젊은 층들에게 본을 보이던지 역할모델이 되던지 생산적인 일을 하는 등 자원봉사나 지역사회활동의 다양한 역할을 통하여 사회적 역할을 형성하고(MacDermid et al., 1998) 이러한 역할을 통해 "자신의 자원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McAdams et al., 1998, p.23).

자원봉사는 책임있는 시민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것(MacAams, Hart and Maruna, 1998)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 책임을 느끼며 돕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Bradly, 1997) 생성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생성감은 개인이 다른 사람에 대해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생길 수 있으므로(Bradly, 1997)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를 통하여 느끼는 따뜻한 마음도(Handy and Mook, 2011) 곧 생성감일 것이다. 자원봉사는 자신의 가치를 사회에 전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생성감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자원봉사자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통해 생성감을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생성감은 중년기에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의 특성으로 자원봉사 등 이타적 행동을 통해 형성되기도 한다(오경석, 2001). 그러나 자원봉사와 생성감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국내 연구로 노년기의 자원봉사의 생성감에 대한 연구와(조윤주, 2015; 한정관, 2015) 해외의 노인의 생성감에 대한 연구가 있다(Morrow-Howell, Kennevy and Mann, 1999; Warburton and Gooch, 2007). 김영신, 편명희(2016)의 연구는 노인자원봉사자의 생성감이 자아통합감을 예측하는 독립변인으로 사용되었으며 생성감은 자아통합감에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에릭슨의 사회심리이론인 중년기의 생성감은 노년기의 자아통합감으로 발전한다는 것을 설명하기도 한다. 이금룡 외(2013)의 연구도 노년기 자원봉사의 생성감의 영향을 파악한 것으로 자아통합감을 매개로 생성감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본 것이다.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의 생성감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인자원봉사자의 생성감의 연구에도 연구자의 연구목적에 따라 생성감이 독립변인으로 혹은 종속변인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많은 연구가 베이비붐 세대보다는 노년기의 자원봉사의 생성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오경석(2001)의 연구에서도 중년기의 생성감보다 노년기의 생성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 중년기에 형성된 생성감은 노년기에 더 증가하며 성공적 노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자원봉사를 통한 중년기의 생성감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중년기나 노년기와 상관없이 자원봉사는 생성감에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Espanes et al., 2016). 한 연구에 의하면 노인들의 자원봉사참여는 생성감과 자아통합감을 모두 향상시켰다(한정란, 2015). 생성감의 특성은 개인주의적인 것과 공동체적인 것으로 나뉘는데(McAdams and de St. Aubu, 1992) 조윤주(2015)의 연구는 사회적 관계의 일반으로 노인들의 자원봉사는 공동체적 생성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생성감의 중요한 특성인 공동체적 생성감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대표적 활동인 자원봉사와의 관계를 통하여 규명될 수 있을 것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자원봉사를 통한 생성감의 영향 파악을 통해 은퇴 후 사회구성원으로서 새로운 역할정체성의 수립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방향 제시가 가능할 것이다.

2. 자원봉사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자원봉사 연구에 많이 사용되는 변인들은 인구사회적 특성 뿐 아니라 건강, 기능, 라이프스타일, 종교, 심리적 상태 등으로(Morrow-Howell et al., 2003) 자원봉사의 효과에는 개인의 성품도 반영이 된다(Pushkar, Reis and Morros, 2002). 실질적인 자원봉사의 역할은 연령, 성별, 사회경제적인 지위에 의해 구성되어지며(Son and Wills, 2011) 자원봉사자의 연령, 성별, 교육, 수입, 건강 등 인구사회적인 변인은 심리적 복지와 관계가 있다(Greenfield and Marks, 2004; Morrow-Howell and Kinnevy, 1999).

1) 연령과 성별

연령이 자원봉사에 미치는 연구는 다양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연령은 자원봉사 참여 여부나 참여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강철희 외, 2015). 연령에 따른 자원봉사의 영향을 본 연구는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연령이 높을

수록 자원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이현기, 2013). 성별에 따른 자원봉사의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들은 애착에 많은 관심을 가지므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의 연장으로 보기도 한다(Wilson, 2000). 빈둥지를 경험하는 여성들이 자녀들을 출가시키고 더 이상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하지 않을 때 자원봉사를 통하여 자신들의 역할을 사회적으로 연장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여성들은 역할대체를 통해 빈둥지 신드롬을 어느 정도 완화시킨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인적 자원이 풍부하고 자원을 더 잘 활용한다고(Wilson, 2000) 하며 여성보다 교육이 자원봉사에 훨씬 강하게 작용한다고 한다(Wilson, 2000).

성별은 생성감과 복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McAdams et al., 1998). 여성들은 남성보다 자원봉사를 많이 하며 자원봉사에 많이 연루되어있다(Rozario, 2006-2007). 일반적으로 여성의 생성감은 남성보다 높다고 한다(Bradley, 1997). 이는 여성들의 배려하는 특성 때문일 것이다. 자원봉사는 은퇴 후나 여성들이 빈둥지를 경험한 후 소외감을 느낄 때 자신과 사회를 연결시켜 주는 하나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는 빈둥지로, 남성들의 경우는 은퇴 등으로 인하여 사회에서의 생성감에 위기를 느낄 수 있으므로(Slater, 2003) 자원봉사는 이러한 생성감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교육

교육 수준과 종교는 자원봉사와 상관관계가 높다(Thoits and Hewitt, 2001).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능력과 자신감이 있으며 교육을 통한 사회통합감과 네트워크로 인하여 자원봉사를 할 기회가 많다고 한다(Son and Wilson, 2011). 또한 개인은 교육을 통하여 생산적 행동이나 사회에 대해 생성감을 느끼고 행동을 형성한다고 한다(McAdams et al., 1998). 교육은 기회를 제공하고 성취를 반영하므로 생성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McAdams, et al. 1998). 그러므로 이전 세대보다 교육수준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생성감의 효과를 알 수 있을 것이다.

3) 종교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 뿐 아니라 종교가 있는 사람들도 자원봉사를 더 많이 하

는 경향이 있다(Cutler, Hendricks and O'Neill, 2011; Son and Wilson, 2011; Tang, 2006). 이는 종교의 교리나 종교를 통한 네트워크가 자원봉사를 더 쉽게 하도록 만들기 때문일 것이다. Son과 Wilson(2011)에 의하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종교가 사회적으로 통합되어 있고 교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이타적 행동에 가치를 두고 사회적인 책임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더 많이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4) 직업

직장인들은 시간적으로 부족하기는 하지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직장이 있는 사람이 자원봉사를 더 많이 하였다(Wilson and Musick, 2003). 특히 중년에는 직장생활의 안정이 성인들의 자원봉사를 증진시킨다고(Tang, 2006)한다. 직업이 있는 사람은 직업이 없는 사람보다 자원봉사를 더 많이 하는데(Cutler et al., 2011; Rozario, 2006-2007; Wilson and Musick, 2003) 안정된 직업이 자원봉사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 건강

주관적 건강은 중년기 자원봉사의 중요한 예측요인으로(Li and Ferraro 2006) 베이비붐 세대의 자원봉사에 유의한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자원봉사활동 유무와 관계가 크며(Morrow-Howell et al., 2003) 사회통합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강현정 2012). 또한 건강할수록 자원봉사역할에 대한 가치부여가 높았다(황관식, 김선희, 2012). 건강이 좋지 않을 경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노인자원봉사자의 경우도 건강이 좋을 수록 생성감이 높았다(김영신, 편명희, 2016).

3. 자원봉사 관련 변인

자원봉사를 할 때 자원봉사 대상이 누구인가, 자원봉사를 얼마나 했는가, 또 자원봉사를 통한 성취감이나 자원봉사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자원봉사에 참여한 시간이나 자원봉사 유형 등도 자원봉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Morrow-Howell and Kinney, 1999)고 한다.

1) 자원봉사대상

자원봉사 대상은 자원봉사 효과를 측정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척도로(Clary et al., 1991) 자원봉사대상이나 유형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Morrow-Howell et al., 2003). 자원봉사대상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보다 자원봉사를 통한 보상이 훨씬 크다(Wheeler, Gorey and Greenblatt, 1998). 심리적 보상의 측면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를 한 후에 느끼는 유익은 다를 것이다. 즉 생성감이 다른 사람에 유익을 끼치는 느낌이라면 자원봉사대상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즉 의미있는 자원봉사 일 경우 자원봉사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더 크다(Wheeler, Gorey and Greenblatt, 1998). 자원봉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인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인지의 생성감에 미치는 효과는 달랐다(Morrow-Howell et al., 1999). 그러므로 자원봉사대상이 일반인이나 복지대상이나에 따라, 또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대상일 경우는 단순한 지역사회대상 봉사에 비해 자원봉사의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2) 자원봉사기간 및 시간

자원봉사기간이나 시간은 자원봉사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변인이다(Finkelstein, 2008; Morrow-Howell, Kinnevy and Mann, 1999). 자원봉사기간은 연속성의 측면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자원봉사를 하므로 자원봉사를 계속하는 자원봉사기간은 자원봉사자의 만족감 등 복지에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Finkelstein, 2008).

자원봉사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얼마나 시간을 헌신하였느냐 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는 것으로 시간을 많이 투자할수록 유익이 크다(Van Willigen, 2000)고 한다. 생성감은 시간을 의미있게 사용했을 때 나타나기도 하는데(Morrow-Howell, Kinnevy and Mann, 1999) 생성감은 자원봉사를 한 시간과 긍정적 관계가 있다(Son and Wilson, 2011)고 한다. 자신의 시간을 무의미하게 헛되이 사용하지 않고 생산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생성감을 느낄 것이다.

3) 자원봉사만족감 및 자원봉사성취감

자원봉사를 통해서 자원봉사자는 심리적 만족감이나 성취감을 누릴 수 있다. 자원봉

사만족은 자원봉사를 계속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Pushkar, Reis and Morros, 2002). 반면 자원봉사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자원봉사 자체를 그만둘 가능성도 크다(Morrow-Howell, 1989). 자원봉사를 한 것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자신의 도움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쳤을 때 또한 자신의 자원봉사동기와 맞는 자원봉사를 하였을 때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성취감을 느끼게 된다(Wilsin and Musick, 2003). 자원봉사와 생성감은 아주 긴밀하게 작용하는데 자원봉사를 통한 만족감이나 자원봉사를 통한 성취감이 높은 경우 생성감을 더 많이 느꼈을 수 있을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분석방법

서울과 경기지역에는 전체 베이비붐 세대의 2/5가 거주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경기지역에 거주하며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280명으로 베이비붐 세대들 중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베이비붐 세대를 통계청의 인구조사에 근거한 성별에 따른 인구비례할당에 의하여 표집하였다. 자원봉사에 관한 자료를 얻기위하여는 대면면접을 실시하였으며 표집기간은 2012년 11월이다.

종속변수로는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로올라 생성감 척도가 사용되었다. 통제변인으로는 인구사회적 변인인 연령, 성별, 교육, 종교, 직업, 건강이 사용되었다. 독립변인으로 자원봉사활동분야 및 대상자, 자원봉사시간 및 자원봉사를 통한 느낌 등이 사용되었다. 자원봉사활동 분야는 사회복지분야와 그 외의 문화, 체육, 환경 등의 비사회복지 분야로 나누었으며 자원봉사 대상은 일반인과 독거노인이나 노숙인 등 복지대상자로 구분하였다. 또한 자원봉사를 통한 개인적 만족감과 성취감 등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으로는 첫 번째 연구문제인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라 자원봉사 관련 변인의 차이검증을 위하여 두 집단 비교 시 독립변인이 연속변수인 경우 t 검증을, 세 집단의 비교인 경우는 ANOVA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독립변인이 명목변인인 경우 카이자승 검증을 하였다.

두 번째 연구문제인 베이비붐 세대 자원봉사의 여러 특성의 생성감에의 영향을 파악

하기 위하여는 위계적 회귀분석이 사용되었으며 회귀계수 b 의 유의도를 통하여 생성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세 번째 연구문제인 베이비붐 세대 자원봉사의 여러 특성들이 생성감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표준화 회귀계수인 β 가 사용되었다. 회귀분석을 하기 위해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계수분석이 이루어졌으며 가장 높은 상관관계는 자원봉사만족감과 자원봉사성취감이 .58로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2. 연구 척도

1) 종속변인

생성감은 사회에서 자신이 생산적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으로 종속변인인 생성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로올라의 생성감 척도가 사용되었다(McAdams and Aubin, 1992). 로올라 생성감 척도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생성감 척도로 13 문항의 축약본이 사용되었으며 지역사회참여나 자원봉사참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척도의 내용은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한다고 느낀다”, “나는 나의 공헌이 내가 죽은 후에도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등이다. 각 문항은 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리커트 5점 척도로 총점 범주는 13점에서 65점이며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alpha=.73$ 이다.

2) 통제변인

연령은 만 나이가 사용되었으며 교육은 교육 연한이 사용되었다. 종교는 있으면 1, 없으면 0으로 더미코딩 하였으며 직업도 있으면 1, 없으면 0으로 더미코딩 하였다. 건강은 주관적 건강으로 자신과 같은 나이 또래와 비교한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로 매우 나쁘면 1, 매우 좋으면 5로,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3) 독립변인(자원봉사 관련 변인)

자원봉사분야가 사회복지분야인 경우는 1, 기타 공공질서나 환경 보호 등 사회복지분야가 아닌 경우는 0으로 코딩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 대상이 독거노인이나 노숙인 등 복지대상자인 경우는 1, 일반인인 경우는 0으로 코딩하였다. 자원봉사기간은 얼마

나 오랫동안 자원봉사를 하였나로 1은 1년 미만, 7은 20년 이상으로 7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원봉사시간은 한 달 동안의 평균 자원봉사활동을 한 시간을 묻은 것이다. 자원봉사를 통한 자원봉사만족감과 자원봉사성취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Clary et al.(1989)의 척도가 사용되었다. 자원봉사만족감은 자원봉사를 통한 만족감으로 자원봉사경험에 만족, 자원봉사활동을 좋아한다 등 세 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의 리커트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총점 범주는 3점에서 15점이며 내적일관성 신뢰도 $\alpha=.64$ 로 높은 편은 아니다. 자원봉사성취감은 “자원봉사활동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까?”,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기여는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습니까?” 등 여섯 문항으로 이루어져있으며 “1” 매우 그렇다, “5” 전혀 그렇지 않다로 자원봉사성취감이 높은 것에 높은 점수를 주기위하여 역코딩하였다. 총점 범주는 6점에서 30점이며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alpha=.82$ 다.

IV. 연구결과

〈표 1〉 연구대상의 특성(n=280)

변인	속성/구분	100% (n)	변인	속성/구분	100% (n)
연령	평균 52.5		교육	중학교졸업	1.43 (4)
	49-51	39.64 (111)		고등학교졸업	58.93 (165)
	52-54	36.79 (103)		전문대졸업	7.50 (21)
	55-57	23.57 (66)		4년제 대학졸업	32.14 (90)
성별	남성	50 (140)	종교	유	62.14 (174)
	여성	50 (140)		무	37.86 (106)
직업	유	66.07 (185)		유	62.14 (174)
	무	33.93 (95)		무	37.86 (106)

〈표 1〉은 본 연구대상의 특성으로 학력은 고졸이 58.93 %로 전국 베이비붐 세대의 고졸 평균치보다 조금 높으며 대학졸업자도 평균인 25 %보다 조금 높다. 본 연구대상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표집하여 전국보다 교육수준이 조금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직업은 있는 사람이 66.07 %로 약 2/3가 직업이 있으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자원봉사관련 특성

변인	속성/구분 %(n)	변인	속성/구분 % (n)
복지분야영역	사회복지 분야 49.29 (138) 비사회복지 분야 50.71 (142)	시간	1-2: 16,785 (47) 3-10: 60 (168) 11-20: 16,785 (47) 21-30: 2,50 (7) 31이상: 3,93 (11)
자원봉사 대상	복지대상 55.36 (155) 비복지대상 44.64 (125)	자원봉사 만족감	3-9: 7,50 (21) 10-12: 66,79 (187) 13-15: 25,71 (92)
기간	1. 3,57 (10) 2. 17,14 (48) 3. 21,79 (61) 4. 26,43 (74) 5. 21,43 (60) 6. 8,21 (23) 7. 1,43 (4)	자원봉사 성취감	6-18: 4,29 (12) 19-24: 66,78 (187) 25-30: 28,93 (81)
		생성감	13-39: 18,21 (51) 40-52: 80,08 (224) 53-65: 1,79 (5)

〈표 2〉는 연구대상자의 자원봉사관련 변인들의 특성이다. 자원봉사 영역은 사회복지분야와 비사회복지 분야가 약 50 %로 비슷한 수준이며 대상은 복지대상자가 55,36 %로 비복지대상자 44,64 %보다 10 %이상 많다. 자원봉사를 한 기간은 3년에서 5년이 26,43 %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2년에서 3년으로 21,79 %, 5년에서 10년이 21,43 %로 전체의 70 % 정도가 자원봉사를 한 기간이 2년에서 10년 정도의 범주다. 자원봉사시간을 보면 한 달 동안 평균 세 시간에서 열 시간 사이가 60 %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1~2시간과 11~20시간이 각각 16,785 %로 같다. 자원봉사만족감을 보면 66,79 %가 만족으로 자원봉사참여자의 2/3는 만족을, 25,71 %인 1/4은 매우 만족으로 90 % 이상의 자원봉사참여자들은 만족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자원봉사를 통한 성취감도 66,78 %가 큰 성취로 전체의 2/3가량이 큰 성취감을, 매우 큰 성취감은 28,93 %로 전체 자원봉사대상자의 95 % 이상이 자원봉사에 큰 성취감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자의 80 % 이상이 높은 생성감을 보이고 있다.

〈표 3〉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변인들 차이 검증

변인		복지 분야 영역	복지 대상	자원봉 사 기간	자원봉 사 시간	자원봉 사 만족감	자원봉 사 성취감	생성감
성별	여성	60.71 %	67.14 %	3.95	10.57	11.69	23.86	43.62
	남성	37.86 %	43.57 %	3.56	7.19	11.56	22.99	42.81
t-test/ χ^2		14.63***	15.74***	2.44*	3.02**	0.81	2.94	1.44
교육	고졸(169)	52.98 %	55.95 %	3.81	9.32	11.59	23.45	42.99
	전문대졸(21)	23.81 %	47.62 %	3.81	11.57	11.71	24.48	44.43
	대졸이상(90)	48.35 %	56.04 %	3.64	7.46	11.67	23.13	43.35
F-test/ χ^2		6.40*	0.55	0.49	2.06	0.14	2.49	0.93
종교	유(174)	55.17 %	57.47 %	3.75	9.51	11.63	23.44	43.78
	무(106)	39.62 %	51.89 %	3.75	7.86	11.60	23.41	42.29
t-test/ χ^2		6.37*	0.83	0.01	1.55	0.20	0.11	2.60**
직업	유(185)	43.78 %	47.03 %	3.70	7.18	11.53	23.09	42.96
	무(95)	60.00 %	71.58 %	3.86	12.19	11.81	24.07	43.73
t-test/ χ^2		6.60*	15.31***	-0.97	-3.71***	-1.59	-3.17**	-1.30

*p<.05; **p<.01; ***p<.001

〈표 3〉은 자원봉사분야 대상 및 자원봉사 관련 변인에 대한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비교한 것이다. 우선 성별에 따른 자원봉사특성의 차이를 보면 사회복지분야가 여성은 남성보다 유의하게 높으며(60.71 %: 37.86 %) 자원봉사대상도 복지대상은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하게 더 많다(67.14 %: 43.57 %). 자원봉사기간($t=2.44$, $p<.05$) 이나 자원봉사시간($t=3.02$, $p<.01$)도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자원봉사만족감이나 자원봉사성취감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으나 유의한 수준은 아니다. 생성감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복지분야 영역에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종교 유무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종교가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보다 사회복지분야에서 더 많은 자원봉사를 하였으며($\chi^2=6.37$, $p<.05$) 생성감도 유의하게 높았다($t=2.60$, $p<.01$). 직업 유무에 따른 자원봉사 관련 변인을 살펴보면 직업이 없는 경우가 직업이 있는 경우보다 사회복지영역에서 더 자원봉사를

많이 하였으며($\chi^2=6.60$, $p<.05$) 자원봉사대상자가 유의하게 더 많았다($\chi^2=15.31$, $p<.001$). 자원봉사시간의 경우는 직업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유의미하게 적었다($t=-3.71$, $p<.001$). 자원봉사성취감도 직업이 있는 경우는 직업이 없는 경우보다 유의하게 낮았다($t=-3.17$, $p<.01$).

〈표 4〉 자원봉사변인들의 생성감에의 영향 회귀분석

변인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b	β	b	β	b	β	b	β
인구사회적 특성	연령	-0.27*	-0.14	-0.27**	-0.14	-0.23*	-0.12	-0.21*	-0.11
	성별	-0.28	-0.03	-0.27	-0.03	-0.39	-0.04	-0.4	-0.04
	교육	0.00	0.00	-0.01	-0.00	0	0	0.07	0.03
	종교	1.56**	0.16	1.63**	0.17	1.57**	0.16	1.52**	0.16
	직장	-0.10	-0.01	0.09	0.01	0.87	0.09	0.93	0.09
	건강	2.17***	0.26	2.08***	0.25	2.33***	0.28	1.44***	0.17
자원봉사 특성	영역			-0.81	-0.09	-0.79	-0.08	-0.21	-0.02
	대상			1.28*	0.14	1.78**	0.19	0.61	0.07
	기간					-0.27	-0.08	-0.32*	-0.09
	시간					0.12***	0.25	0.07**	0.14
	만족감							0.7***	0.21
	성취감							0.42***	0.23
F test		F(6, 273)=6.14***		F(8, 271)=5.16***		F(10,269)=6.13***		F(12,267)=9.63***	
R ²		0.1188		0.1322		0.1856		0.3021	
R ² 변화값				0.0134		0.0534		0.1165	
F inc. test				F(2, 271)=2.09		F(2,269)=8.85***		F(2,267)=22.29***	

* $p<.05$; ** $p<.01$; *** $p<.001$

각 t-test는 연구문제가 한 방향이므로 한 방향 test임; 본 연구대상의 97.5%가 결혼상태에 있으므로 통제변인으로 사용하지 않음

〈표 4〉는 두 번째 연구문제인 베이비붐 세대 자원봉사의 여러 특성의 생성감에의 영향을 파악 한 것으로 생성감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적 변인과 자원봉사 관련 변

인들의 위계적 회귀분석에 의하면 모델1에 자원봉사자의 인구사회적 변인을 투입하였을 때 생성감의 변량을 11.88 % 설명하고 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생성감을 유의하게 낮추었으며($b=-.27, p<.05$) 종교가 있는 경우는 종교가 없는 경우보다 생성감을 유의하게 더 높게 설명하고 있다($b=1.56, p<.01$). 건강도 좋을 수록 생성감이 높았다($b=2.17, p<.001$). 모델2는 모델1에 자원봉사대상 변인을 투입한 것으로 전체 변인은 생성감 변량을 13.22 % 설명하고 있다. 자원봉사대상 변인 중 복지대상자와 일반대상자의 생성감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었다($b=1.28, p<.01$). 모델3은 모델2에 자원봉사시간 및 시간을 투입한 것으로 자원봉사시간이 많을수록 생성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b=.12, p<.001$) 모델3의 변인은 생성감의 변량을 18.56 % 설명하고 있다. 자원봉사시간과 시간은 생성감의 변량을 5.34 % 설명하고 있으며 유의하다($F_{inc}=8.85, p<.001$). 모델4는 모델3에 자원봉사를 통한 심리적 특성인 심리적 만족감과 성취감을 투입한 것으로 모델4는 생성감의 변량을 30.21 % 설명하고 있다. 이중 자원봉사만족감($b=.70, p<.001$)과 자원봉사성취감($b=.42, p<.001$)은 생성감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자원봉사만족감과 자원봉사성취감은 생성감의 변량을 11.65 % 설명하고 있으며 유의하다($F_{inc}=22.29, p<.001$). 생성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크기를 살펴보면 자원봉사성취감이 가장 높았으며($\beta=.23$), 다음으로 자원봉사만족도($\beta=.21$), 건강($\beta=.17$), 종교($\beta=.16$), 시간($\beta=.14$) 순이었다.

V. 논의 및 제언

자원봉사자들의 성별에 따라 자원봉사 관련 변인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성들은 남성보다 자원봉사영역이나 자원봉사대상도 사회복지분야나 복지영역이 많아 여성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자원봉사시간과 자원봉사시간도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여성들이 남성보다 자원봉사시간도 많음을 알 수 있다. 이타적 동기도 자원봉사의 중요한 동기인데(김미령, 2015) 남성들은 사회적 접촉보다는 이타적 동기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한다. 생성감은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생성감이 남성보다 높다고 하는데(Bradley, 1997) 본 연구의 자원봉사자들도 성별에 따른 생

성감의 차이가 없었다.

직업이 있는 경우는 직업이 없는 경우보다 자원봉사시간이 적었다. 이는 직업이 있는 경우는 직업이 없는 경우보다 시간이 넉넉하지 않으므로 자원봉사시간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적음을 알 수 있다. 자원봉사성취감은 직업이 없는 경우가 직업이 있는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직업이 있는 경우는 자원봉사 뿐 아니라 자신들의 직업을 통해서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직업이 없는 경우는 자원봉사를 통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므로 자원봉사를 통한 성취감은 더욱 클 것이다.

연령, 종교, 건강 등 인구사회적 변인은 생성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결과 종교를 가진 경우 자원봉사 효과가 높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며(Van Willigen, 2000) 건강도 좋을수록 자원봉사효과가 높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한다(김영신, 편명희, 2016; Li and Ferraro 2006)

자원봉사대상이 복지대상자일 경우 생성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복지대상자에 대해 자원봉사를 할 경우 보상이 더 크다는 선행연구를(Wheeler et al., 1998) 지지한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자원봉사를 하였을 때 보람이 더 큰 결과일 것이다. 본 연구결과인 자원봉사에 투자한 시간이 많을 수록 생성감이 높아지는 것도 선행연구를 지지한다(Son and Wilson, 2011). 본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자원봉사만족감이나 자원봉사성취감 등 자원봉사를 통해 얻는 심리적 특성들은 모두 생성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자원봉사를 통한 심리적 변인들을 투입하였을 경우 자원봉사대상 변인은 유의하지 않게 되어 자원봉사를 통한 만족감을 느끼는 것, 성취감을 느끼는 것 등이 자원봉사자의 생성감에 중요한 영향요소임을 알 수 있다. 자원봉사시간은 많을수록 복지 및 만족 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선행연구를 지지한다(Rozario, 2006-7; Thoits, 2001).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 자원봉사는 에릭슨의 사회심리이론의 생성감을 잘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는 횡단 연구로 생성감이 자원봉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자원봉사활동이 생성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없으며 추후 종단적 연구를 통하여 자원봉사활동과 생성감과의 인과관계의 규명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경기지역에 사는 베이비붐 세대를 할당표집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작위로 연구대상을 추출한 것이 아니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연구대상이 자원봉사자 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원봉사 비참여자와의 인구학적 특성

등 자원봉사자와 비봉사자의 차이를 파악할 수 없어 베이비붐 세대들의 어떤 특성이 자원봉사를 하게 하는지 향후 자원봉사참여자와 비참여자의 비교연구도 바람직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함의를 살펴보면 자원봉사자 변인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돌봄을 더 선호한다는 것을 지지한다(Gilligan, 1982). 선행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종교가 있는 것은 베이비붐 세대의 생성감에 긍정적인 예측요인이다. 이것은 종교에서 가르치는 이타주의와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감 등으로 설명 될 수 있을 것이다. 자원봉사성취감은 직업이 없는 사람이 더 높아 자원봉사는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에 사회적 역할로 비공식적 역할이지만 자원봉사를 통해 직업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자원봉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다. 자원봉사의 대상이 일반인일 경우보다 복지대상일 경우 더욱 생성감을 느꼈다. 이러한 결과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다른 사람을 돕는 것으로부터 강화되는 생성감의 특성을 잘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곧 대부분이 은퇴를 맞이할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에게 활발한 자원봉사는 그들의 사회정체성이나 복지에 중요한 요소로 베이비붐 세대에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원봉사를 통해 개인들은 정서적인 보답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Morrow-Howell et al., 2003). 본 연구결과의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살펴보면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를 시작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수준이 높은 이들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이다. 곧 노년기에 들어갈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정책은 사적, 공적인 영역에서 자원봉사를 최대화하여 이들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며 사회적으로 이들의 봉사를 활성화 하는 것일 것이다. 그동안 평균수명이 길지 않은 상황에서 은퇴 후 노년기의 새로운 역할은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은퇴 후 20-30년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노년기의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년기인 베이비붐 세대의 자원봉사가 생성감을 형성하여 노년기까지 계속 된다면 바람직한 성공적 노후를 보내리라 사료되므로 노년기의 새로운 역할정체성 형성을 위한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통해 자원봉사자로서의 새로운 역할 형성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생성감은 선행연구에서 보여주었듯이(김영신, 편영희, 2016) 노년기의 자아통합 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은퇴 후에 노인들이 직장 대신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노인들의 심리

적 복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Thoits, 2001). 현재 은퇴가 진행되고 있는 고학력의 베이비붐 세대에게 자원봉사는 은퇴 후의 사회정체성을 위한 중요한 하나의 대체제가 될 수도 있다(Thoits, 2001). 그러므로 길어진 노년기에 은퇴 후에 베이비붐 세대의 인적 자원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도 자원봉사의 활성화는 필요할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원봉사가 생성감에 중요한 연구결과임을 통하여 노년기에도 활발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베이비붐 세대의 인식을 개선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자원봉사를 통하여 생성감을 형성하는 것은 성공적 노후에도 중요한 영역임을 인지시키는 교육 및 실천현장에서 아직은 그다지 활성화가 되지 않은 베이비붐 세대의 자원봉사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노년기에 접어들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도 노년기로 갈수록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개인자원은 약화되므로 소외감도 느끼기 쉽다(McAdams, Hart and Maruna, 1998). 이러한 소외감 해소를 위해서도 자원봉사대상자와 사회적 관계를 맺는 측면에서도 자원봉사는 베이비붐 세대의 생성감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철희 · 황지민 · 이경혜. 2015. “베이비붐 세대 자원봉사행동에의 영향요인 탐색연구: 이 전세대 및 이후세대와의 비교분석”.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43: 41-71.
- 강현정. 2012.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활동 참여 여부가 사회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노인 복지연구』, 57: 429-448.
- 김미령. 2015. “베이비붐 세대 자원봉사활동이 사회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35(3): 765-783.
- 김영신 · 편명희. 2016. “노인자원봉사 참여 여부가 생성감 및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노년교육연구』, 2(2): 39-56.
- 오경석. 2001. “청년, 중년, 노년의 생성감”. 『한국노년학』, 21(1): 59-71
- 이금룡 · 박상욱 · 유은경. 2013. “노년기 생성감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통합감의 매 개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33(2): 365-379.
- 이현기. 2013. “한국 베이비붐세대의 자원봉사참여 및 참여의사의 영향요인: 노인세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 47: 227-256.
- 조윤주. 2015. “여성 노인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생성감의 역할: 자원봉사와 아동양육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5(2): 249-267.
- 한정란. 2015. “전문 노인자원봉사 활동 참여의 효과”.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43: 127-148.
- 행정안전부 · 자원봉사협의회. 2012. “자원봉사활동진흥을 위한 제2차 국가기본계획 (2013-2017)”. 최종연구보고서.
- 황관식 · 김선희. 2012.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노인의료복지연구』, 4(1): 81-105.
- Atchley, R. 1995. “Continuity Theory.” pp. 227-230. In Encyclopedia of Aging, edited by G. Maddox. New York: Springer.
- Bradley, Cheryl L. 1997. “Generativity-Stagnation: Development of a status model.” Developmental Review 17: 262-290.
- Clary, E. G., M. Snyder, R. D. Ridge, J. Copeland, A. Stukas, and M. Haugen. 1998. “Understanding and assessing the motivations of volunteers: A function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6): 516-530.

- Cutler, S. J., J. Hendricks and G. O'Neill. 2011. "Civic engagement and aging." pp.221-233. In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 edited by Robert H. Binstock and Linda K. George. Burlington, MA: Academic Press.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W.W. Norton and Company.
- Espanes, G. M., Villar, F., Urrutia, A. and Serrat, R. 2015. "Motivation and commitment to volunteering in a sample of Argentinian adults: What is the role of generativity? Educational Gerontology 41: 149-161.
- Finkelstein, Marcia A. 2008. "Volunteers satisfaction and volunteer action: A functional approach."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36(1): 9-18.
- Freedman, Marc. 2006-2007. The social-purpose encore career: Baby boomers, civic engagement, and the nest stage of work, Civic Engagement in Later Life, winter, 2006-2007, 43-46.
- Gilligan, C. 1982.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reenfield, Emily and Nadine F. Marks. 2004. "Formal volunteering as a protective factor for older adults'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58B:5: S258-S264.
- Handy, Femida and Laurie Mook. 2011. "Volunteering and volunteers: Benefit-Cost analyses."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21:4: 412-420.
- Houle, Barbara J., Brad J. Sagarin and Martin F. Kaplan. 2005. "A functional approach to volunteerism: Do volunteer motives predict task preference?"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27:4: 337-344.
- Keyes, Corey L. M. and Carol D. Ryff. 1998. "Generativity in adult lives: Social structural contours and quality of life consequences." pp.227-263. In Generativity and adult development: How and why we care for the next generation, edited by Dan P. McAdams and Ed de St. Aubin.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Li, Yunqing and Kenneth F. Ferraro. 2005. "Volunteering and depression in later life: Social benefit or selection processe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6(March): 68-84.

- Li, Yunqing and Kenneth F. Ferraro. 2006. "Volunteering in middle and later life: Is health a benefit, barrier or both?" *Social Forces*, 85(1): 497-519.
- McAdams, D. P., and E. D. St. Aubin, 1992. "A theory of generativity and its assessment through self-report, behavioral acts, and narrative themes in autobiograph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1003-1015.
- McAdams, Dan P., Holly M. Hart and Shadd. Maruna. 1998. "The anatomy of generativity." pp.7-43. In *Generativity and adult development: How and why we care for the next generation*, edited by Dan P. Mcadams and Ed de St. Aubin.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Morrow-Howell, Nancy. 1989. "Elderly volunteers: Reasons for initiation and terminating service."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13(3/4): 21-34.
- Morrow-Howell, Nancy, Jim, Hinterlong, Philip A. Rozario and Fengyan Tang, 2003. "Effects of Volunteering on the Well-Being of older Adults." *The Journal of Gerontology* 53B(3): S137-S145.
- Morrow-Howell, Nancy, Song-lee Hong and Fengyan Tang. 2009. "Who benefits from volunteering? Variations in perceived benefits." *The Gerontologist* 49(1): 91-102.
- Morrow-Howell, Nancy, Susan Kinnevy and Marylen Mann. 1999. "The perceived benefits of participating in volunteer and educational activities."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32(2): 65-80.
- Pushkar, Dolores, Myrna Reis and Melinda Morros. 2002. "Motivation, personality and well-being in older volunteer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55(2): 141-162
- Rozario, Philip A. 2006-07. "Volunteering among current cohorts of older adults and baby boomers." *Generations Winter*: 31-36.
- Slater, Charles L. 2003. "Generativity versus stagnation: An elaboration of Erikson's adult stage of human development."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10(1): 53-65.
- Son, J., and J. Wilson 2011. "Generativity and volunteering." *Sociological Forum* 26(3): 644-667.
- Tang, Fengyan. 2006. "What resources are needed for volunteerism? A life course perspective."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25(5): 375-390.

- Thoits, P., and I. Hewitt. 2001. "Volunteer work and well-be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2: 115-131.
- Urien, B., and W. Kilbourne. 2010. "Generativity and self-enhancement values in eco friendly behavioral intentions and environmentally responsible consumptions behavior." *Psychology and Marketing* 28(1): 69-90.
- Van Willigen, Marieke. 2000. "Differential benefits of volunteering across the life course."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55B(5): S308-S318.
- Warburton, Jeni and Gooch, Margaret. 2007. "Stewardship volunteering by older Australians: The generative response." *Local Environment* 12(1): 43-55.
- Wheeler, Judith A., Kevein M. Gorey and Bernard Greenblatt. 1998. "The beneficial effects of volunteering for older volunteers and the people they serve: A meta-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47(1): 69-79.
- Wilson, John. 2000. "Volunteering."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 215-240.
- Wison, John and Musick. 2003. "Doing well by doing good: Volunteering and occupational achievement among American women." *The Sociological Quarterly* 44(3): 433-450.

Abstract

A Study of the Effect of Korean Baby Boomer Volunteers' Volunteering on Generativity

Kim, Meeryoung*

According to Erikson's psychosocial theory, generativity is obtained through helping others. As a result, caring for others is reflected as a psychological strength, so generativity can be obtained through generativ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factors of affecting Babyboomers' volunteering on generativity. The sample was collected in Seoul and the Kyungki Province, where two fifth of the Korean population live. The sample size of this study is 280.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For control variables, socio-demographic variables such as age, gender, education, religion, job and health were used. For independent variables, the status of client and the characteristics of volunteering were used. Also, the length and frequency of volunteering experience, volunteering satisfaction and personal achievement through volunteering were used. To compare the degree of each independent variable on generativity, standardized coefficient beta was used. According to research results, age, religion and health were important factors affecting generativity. Welfare client was an important factor affecting generativity. Volunteering variables such as the length of volunteer experience, the frequency of voluntary work, volunteering satisfaction and feeling of personal achievement through volunteering were important factors affecting generativity. This study showed that Korean Baby boomers' volunteering was a good explanation of Erikson's psychosocial theory of generativity.

Key words: Baby boom generation, volunteering, generativity, volunteering

* Daegu University, Department of Community Development and Welfare, Professor;
Director of the Institute of Aging Society

satisfaction, feeling of personal achievement through volunteering

[논문투고일: 2018.06.30, 심사일: 1차-2018.08.02 / 2차-2018.08.18, 심사완료일: 2018.08.21]